

# A Very Special "Thank you"

2020 (재)솔브레인나눔재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사랑을 전해주시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재단의 활동에  
관심을 부탁드리며, 내어주시신 정성을  
보다 값지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솔브레인나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이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기창	맹근영	이석중	박종관
강모광	문정은	이승우	주상진
강신명	박종민	이승현	이광용
강원규	박향원	이양화	이창훈
강창규	박휴범	이영재	박한용
강효규	배정완	이영주	정은일
경진규	백석현	이용민	이병철
고기환	변순형	이정민	전희철
고재환	서영석	이정훈	주상현
구병양	서용성	이찬호	황중덕
구병철	서장민	이창신	임동훈
구자형	소현정	이창호	최형진
권순기	손정립	이태기	정영민
김기성	손정용	이하수	서한석
김나래	손홍민	이한나	김익희
김대식	송병학	이 헌	박상민
김동인	송찬영	이화정	박건호
김동현	신동우	임성철	김진희
김만수	신세철	임승순	이아랑
김명희	심지연	임영신	최인철
김민주	안병윤	임영수	곽평근
김석주	안은아	임재욱	손봉수
김성중	안정울	임정은	박경호
김세영	안준후	임정훈	임상혁
김연수	안진영	장은아	홍석일
김영덕	양한일	정성학	신정만
김왕현	염해중	정진욱	허 남
김의수	오경찬	정찬구	서선호
김정유	오 석	정찬우	박덕현
김종숙	오재영	조동호	임종성
김종오	오춘택	조성운	강병창
김종운	오태은	조종훈	정동준
김종주	왕비송	주종민	안광현
김지영	우동훈	채석욱	최원재
김지현	유창진	최오중	장미령
김지훈	윤석하	한송이	최승향
김진영	윤석환	한종원	김성현
김태양	윤석훈	한지성	윤주현
김태진	이건주	함현식	전재수
김현지	이계민	허시범	윤홍선
김현진	이국제	홍기선	김윤희
김호직	이길호	홍은아	정상목
김환일	이동우	현재민	임재정
노인섭	이명규	조경식	여대동
노준식	이명하	신교승	조준성
노태구	이백규	김선욱	최동선
류소연	이상원	김소희	곽정인

2021 솔브레인나눔재단 매거진

# THE NANUM



soulbrain 나눔재단

안녕하세요. (재)솔브레인나눔재단 이사장 임혜옥입니다.

우리 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나눔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에 위하여 노력하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0년 다양한 목적 사업을 통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여 눈을 바라보던 순간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당연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시대입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리운 사람들에게 전화와 편지를 나누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솔브레인나눔재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고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1년 (재)솔브레인나눔재단을 지켜봐주시고, 동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솔브레인나눔재단 이사장 임혜옥

## Contents

02	인사말 · 목차
03	2020 장학사업 · 신명아이마루 후원
0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기후원
05	화상치료비후원 · 사랑의헌혈 · 의료비지원사업
06	디딤씨앗통장사업 · 가족상담센터지원사업
07	쏘울박스 · 취약계층물품지원 · 엔젤박스후원
08	미니도서관 · 가스차단기기증 · 다같이 만난 세상
09	더라운지 행복나눔식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10	공주시 아기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 · 육아용품 지원사업
11	따뜻한 솔박스 · 편집장의 편지 · 후원현황

• 솔브레인나눔재단 매거진 <THE NANUM> • 발행일 2020년 12월 • 발행처 (재)솔브레인나눔재단  
 • 발행인 임혜옥 • 편집장 강창규 • 기획 광정인 • 홈페이지 www.soulbrain-nanum.co.kr • 문의처 jikwak@soulbrain.co.kr  
 • <THE NANUM>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사회공헌활동 소식을 담은 매거진입니다.

## 사람을 키워내는 솔브레인나눔재단

### 2020년 장학사업으로 총 133명에게 장학금 전달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도윤이는 시험기간에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작 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늘 속이 상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아, 그나마 미뤄놓은 학비 부담 외에도 책값과 용돈 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공부에 전념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과 성적만큼은 우수한 편이었으며, 취업준비를 위해 영어 공부 또한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학과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도윤이는 솔브레인나눔재단의 이공계열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대학장학사업으로 선발된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올해 기준 8명. 한 학생당 3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해는 화학 및 화학공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학과성과와 여학생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향후 솔브레인 입사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고교생 장학사업으로 공주시 소재의 7개 고등학교와 논산시 소재의 5개 고등학교, 그리고 공주시 6개 중학교에서 총 125명을 선발하여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꿈에 대한 응원이 더해진 것은 물론입니다.

올해는 제5회 솔브레인나눔재단 장학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기준 총 1억 5천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솔브레인나눔재단 장학사업을 추진해온 혁신팀 오태은 팀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지지 못했으나, 각 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 감사인사를 전해 들곤 합니다. 솔브레인의 발전과 성장이 된 공주 및 충청권 지역사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장학사업을 통하여 환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브레인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만큼,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브레인나눔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하여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 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한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신명아이마루 교육비 지원사업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세상을 만난 아기들, 그리고 가족이 해체되어 오갈 곳이 없어진 아동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신명아이마루. 지난 9월 26일, 정지완 회장님과 솔브레인나눔재단 사무직원들은 이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화성시 기간동에 위치한 신명아이마루는 아이들이 나이별로 가정을 이루고, 두 명의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입니다. 나이에 비해 제법 무거워 보이는 손가락질마저 척척 해내며, 우리가 들고 간 LA갈비를 빼 채 들고 고기를 뜯어먹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이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아동들의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학원 수강료를 후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발달지연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의 발달장애 치료비 지원 사업을 준비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조기 개입이 꼭 필요한 치료입니다. 단순히 먹고 입히는 후원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재단 사무국 재정을 총괄하는 원자재구매팀 김세영매니저는 "언젠가는 세상에 홀로서야 할 아이들. 이 친구들에 대한 후원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일꾼을 길러내는 일이지요, 곧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단은 이 아이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하여 함께하겠습니다.



## 매마른 땅 위의 아이들에게 단비를

솔브레이나눔재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하여 매달 50명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정기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와 생활하는 아동, 친척 및 일반가정 위탁의 아동, 한부모 생활 자녀, 시설아동들과 결연을 맺어 작지만 꾸준한 후원을 지속해왔습니다. 어린이를 돕는 일, 아이들에게 밝은 내일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 아름다운 결연 - 솔브레이나눔재단과 만났습니다

9월에 우리 재단 후원을 받게 된 영찬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쌍둥이 형들과 함께 생활하는 대리양육가정입니다. 쌍둥이 형들을 출산한 후, 집을 나갔던 어머니는 긴 시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찾아와 영찬이를 몰래 두고 다시 홀연히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삼형제를 돌보는 것에 경제적,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애교가 많은 막내 광우로부터 큰 위로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 게임 스트리밍 유튜버가 되고 싶은 영찬이는 어느덧 예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영찬이가 되길 응원합니다.

12월에 우리재단 후원을 받게 된 광우는 올해 다섯 살 된 남자아이입니다. 광우를 낳자마자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어렵게 주소분하여 찾았으나, 어머니는 그간의 아동학대와 방임의 전력으로 인하여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광우 이전에 출산한 첫째 아이는 이모의 가정위탁으로, 둘째는 보육시설에서 홀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광우 역시 또 다른 이모에게 인계되어 자라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하여 발달이 지연되어 언어치료를 받으며 지내는데, 다행히도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우를 돌보는 이모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광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행복한 종결- 후원을 통하여 잘 성장하였습니다

2017년 6월부터 1년반 동안, 솔브레이나눔재단의 후원을 받은 원희는 아버지와 생활해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전신 마비를 겪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에서의 치료만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오른편의 손과 발을 사용하지 못하던 중 심신의 고통을 겪다 2015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현우는 가정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인 궁핍함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은 물론 가사를 도맡았던 아버지를 도우며 학업에 집중하였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에 재학하며, 경제학도를 향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원을 받았던 대원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장이 좋지 못하여 주 3회 투석치료를 받기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뇌졸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이며, 할머니가 농사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엄마와 누나마저도 왕래가 거의 없이 외롭게 자라났지만, 사교육 없이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주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성적 우수 장학금까지 받아 대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 어린이들의 화상상처 치유를 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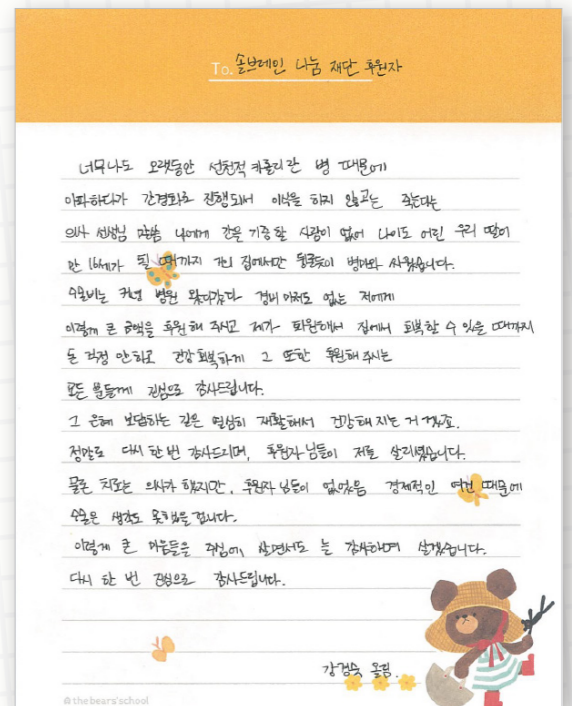
혼자 두 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 남매를 위하여 베란다에서 조개구이를 해 먹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예기치 않게 고체연료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6살 난 딸아이는 성 인도 받기 힘들어하는 치료를 받던 중 천사가 되어 떠났고, 11살 아들은 얼굴과 가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과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에는 도무지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기에 여러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지 모릅니다.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는 죄책감과 치료비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어합니다. 이 어린이 외에도 수많은 화상 환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전기감전으로 인하여 전신 화상을 입은 조손 가정의 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장기 피부이식 수술비를 걱정하는 아이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아이의 아픔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싶은 우리 재단은, 2018년부터 한림화상재단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명의 어린이들의 화상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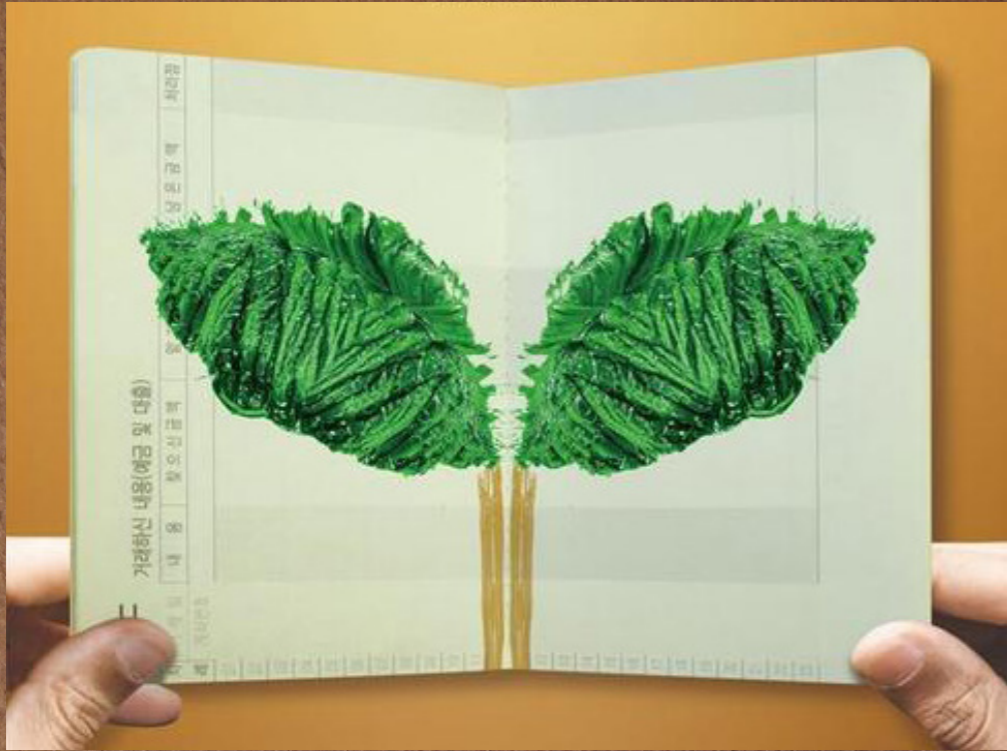
## 솔브레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

2020년 1월 20일, 공주사업장에서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잠깐의 찔나는 따끔했지만, 그 정도는 누구나 참을만한 정도였습니다. 이 날 헌혈에 참여한 연구관리기획팀 임재균 매니저는 “시간을 내어 헌혈한다는 것이 어려웠는데,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니 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건강하다는 증거만큼 기회가 닿는 대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당초 상반기와 하반기 각 사업장에 계획되었던 헌혈 행사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혈액은 인공적 제조가 불가능하기에, 건강한 사람들의 헌혈만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귀한 나눔입니다. 헌혈자원의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수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2015년 말을 기점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헌혈의 수급난도 장기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헌혈자가 줄어들지만, 수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 서로를 사랑하는 모녀를 위한 간 이식 수술비 후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안타까운 모녀의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연초입니다. 아이가 세 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패혈증으로 쓰러져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카롤리병으로 인하여 악화된 건강으로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간 이식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천만원이 넘는 수술비 부담은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저 애만 태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함께 살고 싶었던 그 소박한 꿈을 돕고자 솔브레이나눔재단은 수술비를 후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던 기특한 딸아이는, 다행히도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적합 가능 결과를 받아,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18살 생일을 맞이하자마자, 지난 3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 앞에서 늘상 아픈 모습만 보였던 것이 가슴 아팠던 어머니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재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두 모녀에게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큰 나무로 성장할 작은 씨앗을 심어요 공주시 디딤씨앗통장사업

디딤씨앗통장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만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아동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가정에 위탁된 아동, 소년소녀가정, 그룹홈 생활 아동, 장애인 시설 아동들입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여 자립을 해야 하는 시점을 대비하여 경제적인 준비를 돕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브레이나눔재단은 공주시청 아동청소년팀을 통하여 2016년 8월부터 50여명의 아동들을 후원하며 디딤씨앗통장사업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재단과 결연하여 후원이 이루어지는 아동은 총 80명. 매월 10일마다 아이들 혹은 양육기관 등에서 저축한 금액만큼을 지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만 18세가 지나 자립을 하는 시기가 왔을 때, 학자금이나 주거비용, 취업훈련 등에 사용될 금액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올 한해 공주시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96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으며, 더 많은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나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 희망을 전하는 따듯하고 작은 불씨 공주시가족상담센터 지원사업

공주시가족상담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희망의 불씨 지원금>은 연간 진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공주시가족상담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적, 의료적, 심리정서적 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상담과 교정치료를 하는 여성가족부 지원 여성복지이용시설입니다. 솔브레이나눔재단은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위기 가정의 자녀와 결연하여 생활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탁사업으로 가정폭력가정 사례관리로, 다섯 가정의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 (총 50시간) 운영 후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 재단은 2천만원 상당의 정기후원을 하였고, 명절 때마다 추가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노무팀 정화영 매니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선생님들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시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솔브레이나눔재단은 사회 곳곳에 처한 어려움을 돕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외로운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솔브레인의 마음 박스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 다들 신나는 계획으로 들떠있는 와중에,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집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7월과 12월에 맞추어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정성껏 포장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Soul-box> 사업입니다. 솔브레이나눔재단 사목국원 외에도 참여를 원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과 12월 행사를 준비한 인사팀 신승철 매니저는 "회사의 핵심가치 중, 인성과 연계된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낍니다."라며 해맑게 웃네요. 8살 아동들을 위하여 준비한 한 박스를 살짝 열어보니 어린이용 마스크, 패딩 조끼, 학용품세트와 어린이용 비타민, 구강위생용품이 가득 들어있네요. 10만원 한도 금액에 맞추어 풍성한 선물을 열심히 골랐을 임직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본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보고 좋아할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2021년에는 더 많은 박스에 사랑을 담을 수 있겠죠?

### 한 달에 한번 크리스마스 아침의 선물

연간사업으로 매월 진행되고 있는 물품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솔브레이나눔재단 사회복지사업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공주시청 21가구와 성남지역 6가구. 이들에게는 매월 하루는 크리스마스 아침 같은 시간이 됩니다.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여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얼굴을 마주하거나 손을 맞잡을 수 없지만, 진심만큼은 온전히 담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에는 명절음식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전달합니다. 공주 지역주민 지원에 참여하는 노무팀 윤홍선 매니저는 "어르신들께서 먹지 않고 아껴둔 요구르트와 고구마를 건네주시며 정말 고마워하십니다.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방역수칙을 위하여 배송으로만 보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참, 12월에는 삼성전자협성회에서 마음을 보태주시어, 맛있는 굴과 김장김치까지 보내드릴 수 있었답니다. 혹시라도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더 드릴 수 있는 것을 찾고 고민하는 일년 내내 뛰어다니는 산타클로스, 솔브레이나눔재단이 되겠습니다.

### 걱정 말아요, 예비 숙녀를 위한 비밀선물

성남과 공주시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엔젤박스 후원사업은 연중 진행되었으며, 격월로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고 있는 민감한 청소년 시기, 매달 구매해야 하는 여성용품 금액의 부담까지 더해졌던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선생님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참 필요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해 후원을 받은 여성청소년은 총 160명. 일반적으로 어머니 언니로부터 사용법을 배우게 마련이지만, 가정 해체나 조손 가정에서의 생활 등의 이유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친절한 안내문도 꼼꼼하게 만들어서 함께 발송하였습니다. 매달 마주하는 불편한 경험이 되지 않도록,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솔브레인의 보라색이 더욱 예뻐 보이는 포장. 정말 필요했기에, 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책을 통하여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에게 솔브레인 미니도서관

올해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솔브레인나눔재단은 책을 실어 나르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바로 미니 도서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공주시에 위치한 상서초등학교, 의당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반포초등학교 총 다섯 학교의 도서관의 한 칸에 새 책을 가득 꽂아주었습니다. 각 학교에는 오래되고 낡은 책들이 대부분이라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조차 새 책과 마주했을 때 어찌나 좋은지요. 바스락거리는 새 종이의 신선한 촉감을 느끼며 독서의 즐거움을 마주하는데 하물며 아이들이라고 다르지 않겠지요. 노무팀 윤석하 매니저는 “새 책을 보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좋은 책을 통하여 꿈을 키우는 미니 도서관을 계속 세워나가고 싶습니다”라며 웃습니다. 언젠가는 솔브레인나눔재단의 이름으로 큰 도서관을 지어 세우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그 멋진 도서관 로비에는 <The NANUM> 매거진도 예쁘게 꽂고 싶습니다.

## 안전경영 솔브레인, 나눔재단 활동에도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가스차단기 기증

국을 끓이려고 냄비를 불에 올리고 깜빡 잠이든 할머니,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라면을 끓여먹고 밸브를 잠그지 않아 큰 사고를 당할뻔한 초등학생,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홀로 지내시는 할아버지. 우리 재단은 공주시 소방서를 통하여 마주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차단기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스 사용 설정시간이 지나면 중간 밸브가 자동으로 닫혀서 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공주사업장 인근 지역인 만수리, 봉정동, 검상동, 태봉동의 174가구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겨울 가스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ESH운영팀 이종훈 매니저는 “환경안전보건에너지경영에 앞장서는 솔브레인인만큼, 안전과 관련한 봉사나 나눔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똑딱똑딱, 공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만난 세상

공주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다같이 만난 세상>을 떠올리면, MBC TV에서 방영되었던 “러브하우스”가 생각납니다. 일상 생활이 어려울 만큼 엉망이었던 집을 편리하고 세련되게 바꾸어주고, 주인공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진 프로그램이었지요. <다같이 만난 세상> 이름으로 시행되는 솔브레인나눔재단 사업 역시, 공주시 지역사회를 위한 “러브하우스”와 같답니다. 올해는 공주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공동체, 사랑요양원, 공주시장애인사회복지관 세 곳의 공간을 정비해드렸습니다. 지체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사랑요양원은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일반침대 10개를 병원용 침대로 교체해드렸으며, 이동용 침대를 2대를 구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도의 데코타일을 보수하고 화장실 문 도색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찢어진 장판을 테이프로 겨우 붙여 사용하던 공간을 깔끔한 장판으로 교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창이 뒤틀리고 벌어진 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방풍실을 설치하고 유리문을 교체해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노무팀 김영찬 매니저는 “그간 불편하셨을텐데 그저 익숙해지기까지 참고 이용해주셨을 모습을 떠올리면 더 빨리 고쳐드리지 못한 미안함마저 들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면 힘든 과정이 싹 잊혀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 따뜻한 파스타와 행복한 피자 더라운지, 행복나눔식탁 초청행사



솔브레인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더라운지>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바로 행복나눔식탁이 펼쳐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도 성남꿈나무학교, 우리함께웃는태평, 해남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의 초청을 비롯하여 열 차례의 풍성한 식탁을 차려냈습니다. 1월에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 청소년 7명을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룹홈 초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한 자리입니다. 그룹홈은 가정의 해체나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부모와 생활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돌봄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함께 의지하며 생활하는 친구들에게 근사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초대는 들뜨고 신나는 외출이 됩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꼭 입고 싶었던 멋진 외투도 선물 받고, 가지고 놀고 싶었던 블록세트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은 매년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 준비에도 감사를 전한다.”라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곤 합니다. ‘더라운지’는 우리재단에서 운영하여, 수익금 전액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착한 레스토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장사를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더 많이 초대하고 싶거든요.

##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나눔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후원사업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는 공주시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공주시청에서 설립하고 청소년단체인 한국 BBS 공주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통합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29조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전문상담 기관입니다.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며 위기청소년 지원 및 지역사회 지원 연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하여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공주지역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행사들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친구들은 자연스레 복지센터에서의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 재단은 5월 운영비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에는 150만원 상당의 슬루반 블록을 구매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교구를 후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연계하여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 우리 솔브레인나눔재단은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공주시 아기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도시마다 겪고 있는 인구 감소세 또한 솔브레인 공장이 위치한 공주시가 직면한 과제라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출산 장려책 강화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산기쁨 행복나눔>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아 행동하는 솔브레인나눔재단이 머티리얼즈파크의 유아용품들을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5월, 3,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였습니다.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게 된 아기들이 출생신고를 마치면, 국가와 시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나 선물 외에도 또 하나의 꾸러미를 받게 됩니다. 머티리얼즈파크와 함께 준비한 수유용품, 아기의류, 보행기 등으로 구성된 세트입니다. 공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솔브레인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해가는 한편, 솔브레인나눔재단은 출산 장려와 관련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머티리얼즈파크와 함께한 육아용품 나눔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 그 탄생은 온 가족들이 축하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과 만나야 하는 아기들. 그들 또한 축복받아야 하는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임신, 그리고 출산과 양육을 홀로 결정한 엄마들이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월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남지부를 통한 2천만원 규모의 물품지원사업을 진행하고, 5월 밀알복지재단 기빙플러스를 통해 3천만원 규모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엄마, 혹은 아빠의 양육으로 가정을 이룬 한부모가정들을 위하여 13곳의 미혼모자복지시설과 부자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13곳의 기관에 총 1억원 상당의 3,400여개 유아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들, 낳고 기르기를 결심한 멋진 엄마, 혹은 아빠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외롭지 않도록 햇살 가득 담아낸 따뜻한 솔박스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햇살을 담아드리는 <따뜻한 솔박스>를 준비한 것은 지난 11월. 겨울을 앞두고 더 쌀쌀하고 추운 계절 나기를 걱정하고 있는 홀로되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솔브레인나눔재단은 겨울에 필요한 용품들을 마련해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사용하실 상황을 생각하며 물건을 고르고, 정성껏 포장까지 마쳐 12월 10일, 공주사업장에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코로나19만 없었더라면 직접 방문하여 거칠고 차가워진 손을 맞잡고 말벗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글자씩 꼭꼭 눌러쓰는 마음으로 제작한 엽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천천히 읽으며 잔잔히 미소 지을 분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따뜻한 솔박스>는 폭염과 혹한기 계절 나기에 어려움을 겪을 어르신들을 위하여 2021년에도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시 정상동에 위치한 회사, 솔브레인이 인사드립니다. 솔브레인의 나눔가치를 모아 어르신들 위한 <따뜻한 솔박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 기고 다니세요. 그리고 가정에 혼자 계실 때에 쌀쌀하지 않도록 패딩조끼도 넣어왔어요. 피부를 위한 특효한 크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발마사지 패드도 동봉되시기 바랍니다.  
박스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별도로 동봉하고 가벼운 구스다운 이불도 챙겨드립니다. 거털실 100%라, 냄새가 나더라도 주사일간 동풍 잘 되는 곳에서 바람 통하게 두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용품을 담으면서 좋아하실 어르신 모습을 떠올리며 포장 했어요.  
공주 지역사회를 위하여 좋은 일에 앞장서는 솔브레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겨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 따뜻한 기운을 담아 솔브레인 드림 -

## THE NANUM 편집장의 편지

바람이 불어오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 솔브레인나눔재단 활동을 통해 따뜻한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벌이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공주 사랑의공동모금회를 통한 <연말이웃돕기> 1500만원의 후원이 그 시작입니다. 또한 연탄은행을 통하여 공주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하여 <연탄배달사업>을 합니다. 매년 사회복지사업팀 팀원들이 가가 호호 방문하여 연탄을 전해주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직접 찾아 뵙는 봉사를 하지 못해 아쉽기도 합니다. 또한 12월 11일, 삼성전자협성회의 참례로 김치와 굴, 마스크등을 100여박스를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충청신문사를 통하여 쌀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쌀 기부가 왜 말인가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의 끼니, 당장 내일의 삶을 걱정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홑겹 옷 한 벌로 추위를 당연스레 견디는 어린이, 전기밥솥을 선물 받았음에도 전기가 끊겨 버려 사용이 어려운 할머니, 불편한 몸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평생의 삶이 그러했다는 듯이 무기력한 이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재단이 더 열심히 나눔을 실천해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더한다면 겨울은 추운 계절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계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솔브레인나눔재단 사무국장 강창규

## 2020년 솔브레인나눔재단 후원현황

솔브레인나눔재단의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총 740,863,829원의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12월말 추정치 반영) 2021년에는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